

# 通度寺所藏 金銅佛像 三軀

鄭 永 鎬

梁山郡 通度寺의 寶物藏에는 오래 전부터 傳繼되어 오는 多數의 遺物이 있어 이를 調査한 바 있기에 그 中金銅佛 三軀를 紹介하려 한다. 이 諸像은 出土品인 듯 하며 保存은 良好하나 모두 그 由來가 漠然함은 遺憾된 일이다 (一九六〇年八月調査)

一、如來立像(臺座를 具存 사진上).

全高 一五·五cm의 直立像으로 臺座를 具存하였으며 鍍金이 完全하여全體에 金色이 燦然하다. 素髮의 頭頂에는 아주 큼직한 肉髻가 있고 兩耳는 짧다. 白毫와 三道는 없고 兩眉眼과 口唇이 整然하며 相好가 圓滿하다. 通肩한 法衣는 前面에 弧線을 그리고 있으며 衣端은 무릎 밑까지 내려 굽게 圓弧를 그리고 있는데 그 素朴하며 堅實한 手法이 注目된다. 手印은 通印인데 左手의 拇指를 앞으로 꼬부러 야무지게 表現하였으며 두 발은 正面을 向하고 露出되었다. 臺座는 圓形의 下臺上에 六瓣의 伏蓮



이 있고 그 위에 圓形의 臺座를 마련하였는데 그 蓮瓣이 豊麗하고 若干의 返轉이 있음은 特히 注目된다. 背面에는 彫飾이 없고 매끈하며 臺座下底에는 一·八cm의 內空을 이루고 있다. 年代는 各部樣式이나 相好 및 蓮

瓣의 手法으로 미루어 七世紀中葉前後로 推定된다. 實測

值는 像高 十二·三cm 肩幅 三·七cm 臺座

高 三·二cm 下臺徑 五·二cm

二、如來立像(臺座를 缺함 사진下)

全高 一五·五cm의 正面直立像으로

全體에 靑綠鏽가 덮

혔으나 部分的으로 鍍金이 남아 있다. 素髮의 頭頂에는 肉髻가 있으며

白毫와 三道는 없다. 兩眉眼과 鼻梁이 整齊되고 굳게 닫은 口唇이 兩耳

와 어울리어 豊滿한 相好에 威嚴이 있다. 法衣는 通肩하였는데 胸前에

는 袂衣의 結帶가 보이며 兩膝에서는 弧線을 그리면서 늘어졌고 通印한

양팔을 걸친 流麗한 衣文은 옆으로 펼쳐졌으며 前面무릎 밑의 衣端은 굽

은 圓弧를 그렸다. 背後에는 彫飾이 없고 全面이 파여 있으며 두 발은 露

出되었는데 兩足下에는 突起가 남아 있어 臺座에 꽂았던 痕跡을 보이고

있다. 肢體가 整頓되고 相好와 流麗한 各部手法으로 보아 統一新羅時代

의 優作으로 推定되었다.

實測值는 頭高 三·五cm 肩幅 四·五cm 胸幅 二·五cm

三、如來坐像

光背를 具存하고 結跏趺坐하였는데 全面에 靑綠鏽가 甚하고 各部에 磨損이 있으나 鍍金의 痕跡은 보인다. 머리는 螺髮이 어렴풋하며 頭頂에

는 肉髻가 있고 白毫는 없다. 三道가 있고 相好에 磨痕이 있으나 兩眉

眼과 鼻梁·口唇等은 뚜렷하며 兩頰이 豊滿하여 威嚴이 있다. 兩耳는 짧

고 넓은 편이다. 通肩한 法衣는 두 팔을 걸쳐 흘러 무릎을 덮었으며 手印

은 左手를 들어 胸下部에서 上撐하고 右手는 肩部까지 들어 外撐하였는



대 各五指는若干破損되었다. 무릎은 얇고 좁아 異例의 인데 무릎 下底는三·五cm의 內空이다. 光背는 舟形으로 內曲되었으므로 그 周緣이 火爐文을 이루고 內面間地에는 左右七處에 굵은 火焰文을 도려 내었는데 그 手法이 注目된다. 實測値는 總高一〇cm 陶幅四cm 膝幅四·九cm로 光背 廣幅七cm 下幅六cm이다. 光背의 手法이나 相好 및 各部의 樣式은 보아 年代는 羅末麗初로 推定된다.

## 東國厚生錄의 鑄字製造法

金 然 昌

東國厚生錄(寫本 著者未詳 單卷 每半葉十二行二十字 册長縱二十三寸 橫二十二寸 總一四七葉 筆者藏)은 韓國의 固有한 諸農書와 博物醫書等을 基本하여 自己經驗과 聞見을 添付하여 著述한 一種의 農書인데 著述된 年代는 內容이나 紙質上으로 보아 李朝 肅宗末이나 英祖初頃으로 짐작되며, 內容은 田家占驗 農稔歌 穀種預備 種穀 區種 種樹種花 種蔬 養蠶 養畜 雜方 救荒方 收藏果實法 造煎果法 造蔬菜法 任魚肉法 造醬法 造醋法 造酒法 食忌 煎造茶湯法 造粉麪餅法 造餡糖法 造粥飲法 造料物法 造軟泡法 車輿造筆硯法 鑄字 諸雜方 穀品等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項目中 品名下에 借字나 國文으로 鄉名을 注記하고 地名 人名 文獻을 明示하였다.

특히 本書에 收錄된 鑄字製造法은 從來에 알려진 文獻이 極히 稀少한 뿐만 아니라 陶活字製造法이 記載된 文獻으로는 本書의 記錄이 唯一한 듯하며 左에 그 原文을 紹介하여 同好者에게 一助가 되고자 하는 바이다.

### 「鑄字」

一、鐵鑄字……鐵鑄取陶土精細治之填鋪木板上而板四邊皆有匡郭填鋪既均平曝之日中待其半乾取薄紙楷書大小隨意鎔蠟塗之俟着板上令刻手爲陰刻既訖始鎔鐵取汁用杓灌之板上務令平鋪候冷凝合脫下板上則是爲鐵鑄字每字剪出用鐵刷子磨治箇箇精潔

一、土鑄字……土鑄用陶土精細潤潤者和水如榆木汁之類和合精搗既熟先此取木板列鑿孔穴如鐵丸鑄板背則土皆脫去成形如雙陸骰子置列日中既乾以洪武正韻體書於唐紙模於其上以隔刻之厚塗白蠟灸之火中介夕精好 李統制載恒在黃州兵營時得陶土如磁器土地所無者用作土鑄親書灸出云

一、土板……中原土板則日灸半乾書紙塗蠟模着陽刻如法訖使漆墨印出一板數百張多者列數十板少者列十餘板印訖削去上面刻字又刻如前法印出無限削去之土又治填板云

一、木鑄字……近法木鑄字用烏樺木墨柿木梨樹木華陽木等刻成之

以上の記錄을 一考하면 鐵鑄字란 金屬活字를 通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와같은 金屬活字의 製造方法을 記錄한 文獻으로는 李朝初期 成覲의 慵齊叢話가 있는데 時代와 製造方法이 다른 本書의 記錄은 앞의 研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 바이다.

또한 土鑄字는 陶活字이며 李載恒(字 君望 顯宗十三年壬子生 英祖元年乙巳卒)이 肅宗末頃(西紀一七二〇年頃) 黃海道 黃州에 統制師로 있을 때 黃州에서 産出되는 陶土를 使用하여 親히 洪武正韻體로 親書하여 陶活字를 製造한 史實이 記錄되어 있다. 그러나 그가 그것으로 어떠한 書冊을 印行하였는지에 對해서는 말이 없으나 洪武正韻體로 親作云云 하는 것은 陶活字의 製造法이 金屬活字의 製造法보다 技術上 難點이 있기 때문이다. 即 陶活字는 그 字體가 金屬活字의 字體처럼 精密하며 屈曲性있게 製造되지 못하므로 洪武正韻體와 같이 直線의이며 若干 肥大한 字體로 製造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勿論 李載恒이 그것을 創始하여 普及化한 것은 아니겠지만 肅宗年間을 前後한 印本中에는 그 字體가 洪武正韻體와 類似하며 木活字라고 速斷키 어려운 書冊들이 多存하니 이 點에 對해서 앞으로 留意하여야 할 問題라고 생각한다.

土板에 關해서는 從來 아무런 資料가 論議된 바 없지만 本書에 云云 하듯이 中國에서는 當時 相當히 普及된 듯하며 本書가 著述된 年間 即 康熙年間에 中國에는 磁板으로 刊印된 「周易說略」 등이 現存하고 있으니 本書의 著者가 印刷方面의 厚生에 博聞多見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